

KMI 국제물류위클리

2016년 11월 16일 · 제382호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본부장, 감수 김범중 연구위원

Contents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1. 일본 3대 선사 합병으로 정기선 분야의 추가적인 M&A 붐 촉발 예상
2. 미 서부연안 항만, 선사와 환경문제 공동대응에 나서
3. 새로운 해운얼라이언스 서비스 네트워크
4. 인도 자동차 물류의 구조적 변화 예상

| 물류시장동향 |

1. 2016년 10개월간 러시아 항만 처리물동량 전년대비 5.7% 증가
2. UPS,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도시에 물류허브 구축 계획

| 공지사항 |

1. 2016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모(~11/28)
2. 제12회 해외 물류사업 설명회(11/29, LW컨벤션)





물류정책 · 사업동향

일본 3대 선사 합병으로 정기선 분야의 추가적인 M&A 붐 촉발 예상

- 일본 3대 선사인 MOL, NYK, K-Line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절감 및 생존을 위해 2016년 10월 31일 3사의 컨테이너 정기선 사업부문을 통합하기로 발표함
 - 이에 따라 3사는 2017년 7월 1일까지 공동운항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며, 2018년 4월부터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통합 전 이들 3사는 각각 세계 컨테이너 정기선사 10위권 밖에 랭크되어 있었으나, 이번 통합을 계기로 선복량 140만 TEU을 보유한 세계 6위 컨테이너 정기선사로 부상하게 됨
- Drewry는 이번 일본 3대 선사의 통합이 향후 컨테이너 정기선 분야의 추가적인 M&A 붐을 촉발할 것으로 보고 있음
 - 합병된 일본 3대 선사를 포함하여 세계 Top 10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선복량은 세계 선복량의 약 77%를 차지하며, Top 5 선사의 선복량은 세계 선복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대형 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계 선복량의 3%는 확보해야 하며, 현재 Top 10 선사만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그동안 선사들은 대형선 발주를 상위권에 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나, 선박 과잉 문제를 인식한 대부분 선사들은 규모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M&A를 선택하고 있음
- Drewry는 또 일본 3대 선사의 통합으로 향후 중형 선사들이 Top 7 리그에서 점차 고립될 것이며, 선복량 측면에서 대형 선사와 중형 선사 간 차이가 보다 커질 것으로 보고 있음
 - 즉, Top 7 선사와 나머지 선사, 예를 들면 OOCL, Yang Ming, Hamburg Süd, HMM, Zim 등 선사 간 선복량 규모 차이가 크게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형 선사들이 느끼는 통합 압력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중형 선사들 중 다음 M&A 붐의 주자는 OOCL, Yang Ming, HMM, Zim 등 선사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아울러 현재 통합 일본 3사를 포함한 Top 7 선사가 발주한 신조선이 향후 전부 인도되면 Top 7의 선복량은 적어도 하위 선사의 두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Drewry는 컨테이너 정기선 산업 자체가 M&A로도 해결할 수 없는 선박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향후 합리적인 운임, 수익 개선이 가능한 산업 구조조정과 더불어 비용 절감, 시너지 효과, 규모의 경제를 위한 선사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함

자료 : www.lloydlist.com, 2016.11.7.

김은우 전문연구원

051-797-4680, hisgrace@kmi.re.kr



미 서부연안 항만, 선사와 환경문제 공동대응에 나서

- 세계 최대 선사인 Maersk는 Long Beach(LB)항 및 Los Angeles(LA)항과 함께 미 서안에 기항하는 자사 선박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함
 - 해당 프로젝트는 향후 3년간 Long Beach항 지역의 San Pedro Bay 항구에 기항하는 Maersk 선박의 배기가스 및 에너지 효율을 감시하는 첨단장비를 설치, 선박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The Connected Vessel Programme' 으로 불리는 해당 프로젝트는 향후 3년간 San Pedro Bay 항에 정기적으로 기항하는 Maersk 선박의 배기가스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해 방대한 양과 범위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Maersk는 자사 선박의 연료소모를 줄이고 운송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프로젝트에 1억 2,500만 달러를 투자함
- LA항 및 LB항 역시 선박의 운항 및 정박 중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대한 실시간 감시 시스템 개발에 공동으로 1백만 달러를 지원함
 - LB항의 임시 CEO인 Duane Knaggy는 해당 프로젝트는 향후 깨끗하고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환경지속가능성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범국가적 약속에 대한 좋은 예시라고 밝힘
 - Duane Knaggy는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며, 이 프로젝트가 향후 해양을 운항하는 선박들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보다 발전되고 창의적인 노력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LA항의 전무이사인 Gene Seroka 역시 Maersk의 깨끗한 환경 및 효율적 선박운영에 대한 노력은 해운항만물류 업계 전반에 걸친 환경 개선에 있어 비약적 발전을 의미한다고 밝힘
- IMO는 제22차 유엔기후협약당사국 총회에서 선박의 과다 배출에 대한 규제 등 관련 법제화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어, 해운항만 산업은 모두 환경문제에 집중하고 있음
 - 이제까지 해운항만 산업은 항공 산업과 함께 환경관련 규제에서 상당부분 면제를 받아왔음
 - 그러나 전 세계 50개국이 파리기후협약에 참여하고 있어 해운항만 산업분야 역시 환경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항만 및 선사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자료 : www.porttechnology.org, 2016.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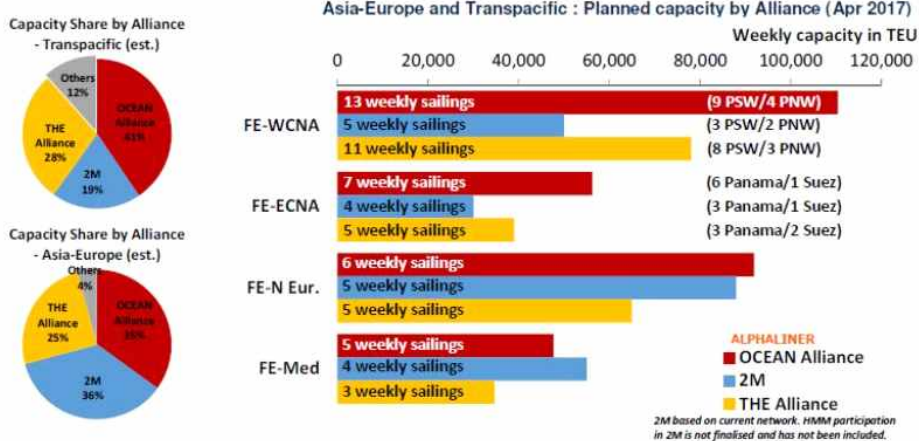
전형모 전문연구원
051-797-4683, hmjeon@kmi.re.kr



새로운 해운얼라이언스 서비스 네트워크

- 오션얼라이언스와 The얼라이언스가 내년부터 운영될 서비스 네트워크를 공개하면서 동서항로의 경쟁구도가 드러남
 - 오션얼라이언스는 초기에 331척(330만 TEU)의 선박을 해당항로에 배치하여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
 - 이는 알파라이너가 11월 3일 CMA CGM(APL포함), COSCON, Evergreen, OOCL 등 네 개의 선사로 구성된 얼라이언스가 공개한 주당 41항차 서비스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임
 - 아시아-북미 항로에서 주당 20항차, 아시아-유럽 항로에서는 11항차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오션얼라이언스는 컨테이너 해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얼라이언스가 될 전망이다
 - 또한 오션얼라이언스는 대서양항로에서 주당 3항차, 극동-중동/홍해항로에서는 7항차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임
- The얼라이언스(하판로이드(UASC 포함), K-Line, MOL, NYK, 양밍)는 11월 8일에 서비스 계획을 공개함
 - The얼라이언스는 244척(225만 TEU)의 선박을 배치하여 주당 31항차의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임
 - The얼라이언스는 태평양항로에서 주당 16항차, 아시아-유럽항로에서 8항차, 대서양항로에서 6항차, 극동-중동항로에서 1항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한편 The얼라이언스에서 한진해운이 제외되면서 당초 The얼라이언스가 계획했던 선대배치 규모에 비해 줄어들었음

얼라이언스별 아시아-유럽 및 태평양 항로 점유율 전망



자료 : Alphaliner

자료 : www.hellenicshippingnews.com, 2016.11.9.

박성화 연구원
051-797-4614, shpark83@kmi.re.kr



인도 자동차 물류의 구조적 변화 예상

- 11월 8일~10일 동안 인도 델리에서는 “Automotive Logistics India Conference”가 개최되었음. 동 컨퍼런스에서 왈레니우스윌헬름센로지스틱스인도의 상무이사 Pankaj Dogra는 인도의 제도 변화로 물류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함
 - 왈레니우스윌헬름센로지스틱스(Wallenius Wilhelmsen Logistics, WWL)는 세계적인 자동차 물류업체로서 노르웨이에 본사를 두고 있음
- 그는 교통안전과 세제 간소화를 위한 인도의 신제도는 인도 내에서 새로운 복합운송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이번 제도 변화는 두 개 분야로 나뉠 수 있으며 인도 내 운송업자와 소비자 등을 포함한 물류 산업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함
- 첫 번째, 도로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동차 트레일러의 최대 길이 변경에 관한 것임
 - 2017년 4월부터 트레일러 최대 허용 길이를 22m에서 18.75m로 축소함
 - 트레일러 최대 허용길이 축소제도는 도로안전을 향상시켜 주행거리 개선과 부대비용 축소측면에서 농업장비 및 자동차 화주들의 효율화를 야기할 것임
- 그러나 트레일러당 적재용량이 축소됨에 따라 트럭 운송업자들은 화물비용에 15~20%의 할증료를 추가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안운송수단이 활성화 될 수 있음
 - 현재 완성차량의 철도수송은 5% 미만에 불과하나 향후 몇 년 후에는 10~15% 이상 성장 가능한 잠재력을 지님. 민간철도업자 또한 시장점유율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또한, 현재 도로 및 철도수송에 뒤쳐진 연안수송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임. 인도의 Shipping Ministry는 항만비와 부두사용료를 인하하고, 세금과 제도를 간소화했으며 이는 연안운송의 비용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여전히 연안 Ro-Ro수송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고, 최근의 서비스 도입 시도도 실효적이지 못해 이번 제도 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혜택은 철도수송 분야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임
 - 단, 철도운송 분야도 몇 가지 제약을 지니고 있음. 철도수송은 도로수송과 달리 복합적인 조작이 필요하며 야적 및 환적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비용이 조금 오를지라도 편리한 도로운송을 선호할 수 있음
- 두 번째, 세제 개편으로 새로운 상품서비스세(Good and Service Tax, GST) 제도를 도입함
 - 인도의 간접세는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나누어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으며 다양한 항목에 대해 주(州)마다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었음



- 또한, 현 간접세 체계에서는 제조품이 제조업자에서 도매업자로 판매될 때 VAT가 발생하며 VAT는 유통과정에서 최종 구매자에게 전이됨. 따라서 제조품이 도매업자에서 소매업자로 유통되어 제조단계에서 도매 단계로 제조품이 유통될 때 VAT가 부과되지 않게 됨¹⁾
- 따라서 제조업자들은 상품 운송을 가능한 빨리 하길 원하며 가장 빠른 운송수단을 선호하게 됨
- 반면에 새로운 GST 제도는 주(州)정부마다 다르게 부과하던 간접세를 하나의 세율로 단일화하여 기존의 복잡한 조세 체계를 단순화 함
- GST가 도입되면 판매나 구매할 때 기준으로 부과하던 세금을 공급 발생 기준으로 부과하게 됨. 또한, 생산된 제품이 주 경계를 넘어설 때에도 부과되었던 세금도 폐지될 예정임
- 이러한 세제 개편은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판매자들이 소비자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허브앤스포크²⁾ 방식을 개발하는데 더욱 유리할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향후에는 자동차제조업체들이 운송 속도에 집중하기 보다는 공급망을 보다 정교하게 개발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 www.automotivelogistics.media/opinion, 2016.11.10

전우현 연구원
051-797-4615, jwh0321@kmi.re.kr

1) 이용, 김신주, "인도 상품서비스세(GST)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오늘의 세계경제」, Vol.16, No.27, 2016.09.19. p.9
2) 허브앤스포크 방식이란 물량을 한 거점에 집중 시킨 후에 각각의 지점으로 분류하여 운송하는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운송과 운송비 절감을 목적으로 함



물류시장동향

2016년 10개월간 러시아 항만 처리물동량 전년대비 5.7% 증가

- 2016년 1월에서 10월동안 러시아 항만을 통해 처리된 물동량이 총 5억9,429만 톤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함
 - 건화물의 경우 총 2억7,770만 톤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하였으며, 그 중 석탄이 1억1,350만 톤(11.9% 증가), 컨테이너 화물 3,520만 톤(6.1% 증가), 곡물 2,820만 톤(1.6% 증가), 철 2,370만 톤(7.3% 증가), 금속류 720만 톤(30.2% 증가), 목재 450만 톤(3.0% 증가), 압연 370만 톤(1.8% 증가)을 차지함
 - 액체화물의 경우 총 3억 1,650만 톤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하였으며, 그 중 석유가 1억 8,710만 톤(11.6% 증가), 천연가스 1,100만 톤(4.6% 증가)을 차지한 반면 석유제품의 경우 1억1,540만 톤으로 전년대비 6.1% 감소한 수치를 보여줌
 - 또한 처리 물동량 중 수출된 화물은 총 6억6,840만 톤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하였고 수입된 화물은 2,600만 톤으로 2.9% 감소하였으며, 환적화물은 4,130만 톤으로 4.2% 증가함
 - 항만 중 북극해 및 극동러시아 항만의 처리물동량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북극항로의 이용 증가와 극동러시아 국제물류회항 프리모리에-1의 개발에 의한 것으로 보임

자료 : www.portnews.ru, 2016.11.10

이하림 연구원
051-797-4758, harimy1@kmi.re.kr

UPS,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도시에 물류허브 구축 계획

- UPS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도시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설해 세계 최대 물류허브를 구축할 계획임
 - 새 물류센터는 애틀랜타에서 서쪽으로 10마일 떨어진 찰리브라운 공항 인근의 마제스터 물류센터에 들어설 예정임
 - 예정된 물류센터의 용도별 규모는 자동 주차 공간 1,324개, 트레일러 보관 공간 1,064개소, 트랙터 서비스 주차 공간 216 개소 등임
- UPS는 이번 시설 투자를 통해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물동량 증가에 따른 배달의 정확성 및 신뢰성 유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애틀랜타 물류허브는 미국 켄터키주 루이스빌과 오리건주 온타리오에 있는 UPS의 대형 허브와 유사할 것이라고 함
 - 애틀랜타는 철도와 도로등 교통인프라 및 주요 항만으로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최적의 입지를 갖춘 물류 허브가 될 것임

* 조지아주에는 4대 주(州)간 고속도로와 2만 마일(약 32,186km)에 이르는 연방고속도로가 있음. 철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CSX Transportation 및 Norfolk Southern은 매일 애틀랜타를 운행하는 100여편 이상의 화물 철도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4대 항구인 사바나(Savannah)항에서 내려진 화물들이 철도로 옮겨져 미국 각 지역으로 운송되고 있음.

자료 : www.bizjournals.com, 2016.11.8.

강선미 연구원
051-797-4776, sunmikang@kmi.re.kr



2016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모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운·물류분야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목적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 비용을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경제·기술·재무·법률 등 측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 신청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 ※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지원 대상

-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 사업

<< 지원대상사업 예시 >>

- 해외 현지법인 설립(단독, 합작, 합자 투자 등) 등 사업거점 확보
- 현지 내수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
-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
-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로 인정되는 사업



● 지원 내용

- 타당성조사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보조(국고보조금+자부담 매칭)

조사비용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지원 비율	중소·중견기업		최대 70%	최대 50%	최대 1억원
	대기업	단독신청 시	최대 40%	최대 20%	최대 5천만원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	최대 70%	최대 50%	최대 1억원

- 접수기간 : 2016. 10. 25(화) 09:00 ~ 11. 28(월) 18:00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양식 1),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사업제안서 1부(양식 2),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양식 3)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발행)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세무법인 발행)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발행)
-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기업의 경우,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접수처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433호
(☎ 044-200-5767)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 동봉)
 -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 선정 방법 및 절차

- 1차 서류심사와 2차 평가위원회 심사로 진행되며, 2차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그로 인해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2차 심사 일시·장소는 별도 공고 혹은 기업에 개별 통지되며, 신청기업은 신청한 사업제안서 내용을 발표(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선정결과 발표 : 2016년 12월 7일(잠정)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 유의사항

-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의 양식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기타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67)로 문의**하시기 바람



제12회 해외 물류사업 설명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12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6년 11월 29일(화), 14:00~18:00
- 장소 : 서울역 LW 컨벤션 크리스탈홀



▶ 서울역 이용시

- ▶ 서부역 롯데마트 방향 800M 직진 후 한국경제신문사 맞은편

▶ 지하철 이용시

- ▶ 2, 5호선 충정로역 4번 출구 (도보5분)
→ 출구방향으로 70M 직진 후 월단보도 건너편 브라운스톤서울 3층
- ▶ 1, 4호선 서울역 서부역 출구 (도보10분)
→ 서부역방향으로 나오신 후 한국경제신문사 방향 이동 후 맞은편

▶ LW컨벤션 주차장 이용안내



- 주최 : 해양수산부
- 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 프로그램 추후 공지
- 참가신청 : 2016년 11월 28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별첨 참가신청서를 이메일(shinsy@kmi.re.kr / joohye915@kmi.re.kr)로 송부

- 참가문의 : 신수용 전문연구원(051-797-4780, shinsy@kmi.re.kr)
김주혜 연구원(051-797-4779, joohye915@kmi.re.kr)

※ 본 설명회는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 참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 관심 기업은 위의 이메일로 반드시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참가신청서

- 일시 : 2016년 11월 29일(화), 14:00~18:00
- 장소 : 서울역 LW 컨벤션 크리스탈홀
- 주최 : 해양수산부
- 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회 사 명	
-------	--

참가자 1

성 명		직 위	
부 서 명		이 메 일	
전화(사무실)		전화(핸드폰)	

참가자 2

성 명		직 위	
부 서 명		이 메 일	
전화(사무실)		전화(핸드폰)	

▶ 참고 사항

- 신청인원 : 참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칸을 추가하여 정보를 기재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16.11.28.(월) 18:00까지 선착순 접수
- 접 수 처 : E-mail (shinsy@kmi.re.kr / joohye915@kmi.re.kr)
- 문 의 :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신수용 전문연구원 Tel.051-797-4780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김주혜 연구원 Tel.051-797-4779
- 기 타 : 참가비 무료